93

◇정맥류 경화요법

김해균, 이교준, 윤용한, 백효채, 이성수, 이두연

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정맥류는 1년에 인구 100명당 2명씩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여자에서 많이 생기며 주요 원인은 정맥판막의 이상이나 정맥벽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원인과 계속적으로 서서 근무하거나 임신 등의 복압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며 주 호발 부위는 양측 하지에 잘 생긴다. 증상은 외견상 보기 싫은 혈관의 확장뿐만 아니라 동통이나 열감, 하지 부종이나 혈관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파열되어 혈종이나 궤양을 만들 수 있다.

방법 : 최근에 정맥주사요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보통 정맥주사 시술 전에 시술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심부정맥을 검사한 후 perforating vein의 위치를 확인하고 근위부 3군데를 Thromboject 1-2 CC 주사한 다음 주사 후 약이 다른 곳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박을 잘 시행하여야 하고, 시술후 첫 일주일은 시술혈관 주위에 검은 반점이나 부종이 생겼다가 4-6주 후에 차차 없어지며 2-3차례의 시술을 반복 시행하였다.

결과 : 1997년 9월부터 수술 없이 혈관 경화약물[sclerosing agent]를 이용한 주사요법으로 33명의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였다. 그중 남자는 12명, 여자는 21명으로 여자가 많았고, 평균나이는 45.4세, 1회에 만족한 결과를 얻은 환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회까지 한 환자도 1명 있었다. 부작용으로는 주사 후 열감을 느끼는 환자 1명 외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. 모든 환자들에서 현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.

결론 : 하지 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혈관경화약물을 이용한 정맥주사요법은 미용적으로 우수하고, 통증이 적으며 외래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경제적 부담도 적은 장점을 지니는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.

책임저자:김해균(연세대학교) 발표자:김해균(연세대학교)